

# 일본, '21세기 신농정 2007' 결정

배 민 식\*

일본정부의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본부장 아베수상)는 농림수산대신이 제안한 '21세기 신농정 2007'을 4월 4일 최종 결정하였다. 향후 일본 농정전개의 기본 방침인 '21세기 신농정 2007'은, ① 식(食)과 농의 새로운 국가전략 확립, ② 국내농업의 체질 강화, ③ 국민·소비자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④ 자원·환경대책, ⑤ 농산어촌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5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 신농정 2007'의 전문을 소개한다.

## 1. 식과 농에 관한 새로운 국가전략 확립

### 1.1. 국제적인 식료사정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식료전략 확립

#### (1) 변화하는 세계 식료사정의 다각화 분석과 국민전체의 인식 공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식료사정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국민에 대한 식료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식료수급, 위생·검역제도, 관세제도 등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며, 그 결과를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나 관계기관에 널리 제공한다.

---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msbae@nanet.go.kr](mailto:msbae@nanet.go.kr) 02-788-4352

## ‘21세기 신농정 2007’의 포인트

- ① 식과 농의 새로운 국가전략 확립
  - 국민식료회의를 통한 새로운 식료전략 확립
  - 2013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1조엔 규모로 확대
  - WTO농업교섭, EPA교섭에 대한 전략적 대응
- ② 국내농업의 체질 강화
  - 전업농에게 시책 집중화·중점화
  - 농지정책개혁
  - 식료공급비용 절감
- ③ 국민·소비자의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 2011년까지 200곳의 야채·과일 산지에 GAP 도입
  - 농림어업 체험활동을 통한 식, 농에 대한 이해 증진
- ④ 자원·환경대책
  - 2011년까지 국산바이오연료를 5만kl 생산
  - 식품리사이클 추진
  -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적극적인 공헌
- ⑤ 농산어촌 활성화
  - 향후 5년간 전국 시정촌의 과반(1,000이상)에서 거주자, 체재자를 늘리는 농산어촌활성화 대책 창출

또 국제적인 식료사정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식료전략을 확립하기 위해 식료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이나 세계의 식료수급 전망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분석을 실시하고 각계의 유식자들이 참가하는 국민식료회의(가칭)의 논의를 통해 식료를 둘러싼 제문제에 대해 국민전체가 인식을 공유한다.

### (2) 국제협력 등을 통한 세계 식료의 안정 생산·공급에 공헌

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신형 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도 도움이 되도록 아시아 각국과 연대하여 아시아 역내의 조기통보체제 정비, 바이러스 전파 루트 해명 등을 추진한다. 또 농산물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식물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병충해 침입 위험에 대처하는 검역제도로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 외에 일본의 경제·사회와의 관련에 배려하면서 외국과의 정책 협조를

지향하고, 도작 등의 농업기술이나 농업자 협동조직화 구조나 노하우 등의 일본형 농업 시스템 이전 등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1.2.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시장 확대

### (1)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촉진

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검역교섭을 가속화하고 수출 상대국·지역이 요구하는 수출증명서 발행 등의 수출 환경 정비의 신속화, 품목별 빈틈없는 수출지원, 일식·일본 식재료 정보의 해외 발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까지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1조엔 규모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동아시아를 염두에 둔 일본 식품산업 활성화

일본 식품산업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활력을 살린 경쟁력 강화 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투자환경 정비나 ‘해외사업활동지원센터’(가칭) 개설 등에 의한 국내외 정보 수집·제공·상담 체제 강화를 도모한다.

### (3) 바이오매스 이활용 가속화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가속화하고 종래의 식료 등의 생산 틀을 넘어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 1.3. WTO 농업교섭, EPA교섭에 대한 전략적 대응

WTO나 EPA의 교섭에서는 ‘일본경제의 진로와 전략’에 입각하고,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이념으로 해서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라는 방침 하에, 국내농업의 고조개혁 진척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일본으로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WTO 농업교섭에 대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을 이룬 무역률 확립을

목표로 하고, 관계 각국과의 연대를 긴밀히 하면서 교섭에 임한다. LDC 국가들에 대해 관세 및 수량제한이 없는 조치의 확대 실시를 비롯한 ‘개발 이니셔티브’(2005년 12월 공표)의 조치에 의해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2. 국내농업 체질 강화

### 2.1. 전업농(担い手)으로 시책의 집중화·중점화

#### (1)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 가속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전업농으로 한정한 품목별·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착실히 실시한다. 또 본 대책 대상인 인정농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대책 달성상황의 점검,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집락영농조직에 대해서는 경영발전을 위한 전문가에 의한 과제 파악과 해결 방침의 제시 등을 도모하고, 각 조직마다의 발전단계에 따른 경영지원을 실시한다. 이것들을 통해 타산업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의 경영발전을 가속화하고, 일본 농업의 식료공급력을 강화한다.

#### (2) 다양한 인재 육성·확보

농업법인이나 농업서비스 사업체의 형태를 취한 전업농 증가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취농 희망자의 농업지식·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농업기술시험의 본격 실시, 재도전 취농자의 새로운 발상·아이디어에 기초한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젊은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재의 농업참여·정착을 후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농업경영자로서의 위치 확립 명확화, 농업경영에의 참여 강화를 촉진한다.

또 외국인연수·기능실습제도 운영의 적정화를 기하고 또한 개발도상국 등의 ‘인재 만들기’에 있어 본 제도의 역할 중요성이나 받아들이는 측 농업경영체의 받아들이는 체제도 고려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해 그 적정화를 위한 재평가를 검토한다.

## 2.2. 농지정책개혁

농업생산·경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인 농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효 이용한다는 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와 더불어 전업농으로의 면적집적(面的集積) 가속화를 최고 중점사항으로 하여 정책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일정 조직(면적집적(面的集積)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이 농지 이용을 일단 전부 모은 다음, 그것을 면적(面的)으로 집적된 형태로 전업농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여 구축하고, 그와 함께 농지를 내놓는 측과 받는 측 모두에게 장점인 조치의 집중화, 중점화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관계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농지 정보의 상호 이용이나 일원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반정비과 함께 전업농으로의 농지이용 집적을 추진한다.

이런 조치에 의해 2015년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경영하는 농지면적의 7할 정도를 면적(面的)으로 집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 의욕적인 기업이나 젊은층이 농외로부터 신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도시농촌교류 등의 관점에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주민 등에 의한 농지의 농업이용을 촉진한다. 또 우량농지 확보, 경작방기지 발생 억제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 2.3. 식료공급 비용 절감

작년 9월에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식료공급비용 축감 액션플랜’을 실시상황의 검증을 고려하여 착실히 실시한다. 또 이 플랜에 기초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시설에 대한 보조제도의 재검토, 과학적 지견 등을

고려한 화학비료의 등록유효기간의 연장이라는 규제의 재검토 등을 실시한다. 또 유통면에 있어서도 대형포장농약이나 수입고도화성비료를 대량이면서 안정적인 유통·판매 추진 등 전업농 경영의 비용 삭감에 중점을 둔 유통개혁을 실시한다.

농협계통의 경제사업개혁에 대해 생산자재가격이나 유통 비용의 저감 등을 확실히 실행하고, 개혁성고가 생산자, 특히 전업농에게 환원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한다. 또 농협 등의 활동에 관해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립·공표하는 ‘농업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이 연대하여 농협 등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한다.

## **2.4. 이노베이션·지적재산의 효력에 의한 농업의 잠재력 발휘**

### **(1)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의 가속화**

농업생산현장의 과제에 대응하고 IT나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체계의 개발·실증을 실시한다. 또 신식품·신소재를 개발하고 그와 함께 국산바이오연료 생산의 저비용화, 신식품 육성에 대한 게놈과학의 응용 등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공업 등의 분야도 포함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나 식료·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공헌 등,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2) 이노베이션 실현을 뒷받침하는 지적재산의 전략적인**

#### **창조·보호·활용**

일본이 아시아 각국에 대해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가칭) 설치를 제안하는 등, 아시아 전체로 식물 신식품종 육성자권의 보호 강화나 침해 방지에 협력해 가는 체제를 강화한다. 또 기술·종묘 등의 지적재산의 보호·활용을 위한 현장의 의식개혁을 실시한다.

### 3. 국민·소비자 시각에서의 식료정책 전개

#### 3.1.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의 총실

##### (1) ‘위해 미연방지’에 중점을 둔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추진

리스크 분석 틀에 근거하여 확실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검토·수립하기 위해 계속 일본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미생물에 의한 식품오염실태를 조사한다. 또 농업생산이나 식품가공의 현장단계에서 새로 GPA(농업생산공정관리수법)이나 식품제조단계에서의 GMP(적정제조규범) 등의 공정관리수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하고,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안전을 확보한다. 한편 야채·과일이나 미백 등의 산지를 대상으로 한 농가 연수·지도 등을 통해 2011년까지 거의 모든 주요 산지(2,000곳의 산지)에서 GAP 도입을 목표로 한다.

##### (2) 행동규범의 수립 등 컴플라이언스 철저

식품가공업 등에서 세미나의 집중 실시 등에 의해 기업 최고 책임자의 의식개혁이나 각 기업에서 행동규범 수립의 촉진 등을 통해 규범의식을 고양시키고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이나 자주기준도 포함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3.2. 농림어업 체험활동을 통한 식이나 농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식육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교육 팜’이나 농산어촌에서의 어린아이들 장기 숙박체험활동을 한층 더 추진하고, ‘생명’을 키우는 농림어업의 체험활동을, 인간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농림어업 체험활동의 장으로서의 ‘식사밸런스가이드’의 효과적인

활용 등에 의해 실제체험을 통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을 도모한다. 더욱이 학교급식, 관광 등 지역이 하나가 되어 지산지소를 실시하는 선진 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것 등을 통해 건전한 식생활이나 식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이해 증진을 가속화한다.

## 4. 지구온난화 대책 등의 자원·환경 대책 추진

### 4.1. 바이오매스 이활용 가속화

#### (1) 국산바이오연료의 대폭적인 생산확대

‘국산바이오원료의 대폭적인 생산확대’(2007년 2월 바이오매스·일본종합 전략추진회의)에 기초하여 바이오에탄올의 대규모 실증에 의한 보급촉진 등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하고 2011년까지 국산바이오연료를 5만kl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벚지이나 목재 등의 셀룰로오스계 원료나 자원작물 전체에서 바이오에탄올을 고효율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의해 국산 바이오연료의 대폭적인 생산확대를 목표로 한다(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2030년경에는 600만kl의 국산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 농림수산성 시산).

#### (2)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 가속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추진체제의 정비, 기술 개발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용을 촉진한다.

#### (3)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린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가축배설물이나 남겨진 농작물 등의 바이오매스 이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치단체,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이활용에 관한 조사 활동 등

을 지원하고 2010년까지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타운을 300개 지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2. 식품 리사이클 추진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이용 등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식품리사이클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관련사업자가 농림어업자나 리사이클업자 등과 연대하여 실시하는 리사이클 루프(식품의 순환자원이용 고리)의 구축 추진 등, 식품리사이클 조치가 뒤처진 식품유통의 ‘아래 단계(川下)’에 위치하는 소매업 등의 식품관련사업자의 조치를 강화한다.

#### 4.3.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적극적인 공헌

2005년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의 증가(기준년도(1990년) 대비 8.1% 증가)나 심각한 지구온난화 실태(IPCC 제4차 평가보고서)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의 6% 삭감약속 달성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방지책이나 지구온난화 진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전략을 여름까지 수립하고,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대책을 가속화한다.

또 농림수산업의 생물다양화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정량적 파악을 위한 지표를 검토한다. 더욱이 유기농업을 비롯한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 마을 주변 산림·농지 등의 혼재지역(里地里山) 정비·보전, 수초지역·간석지 조성, 해양생물자원 보존·지속적 이용 등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여름까지 수립하고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공헌하는 농림수산업 실현을 도모한다.

### 5. ‘아름다운 나라’의 원점에 있는 농산어촌지역을 지키고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

## 5.1.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창의, 연구 후원

### (1) 농산어촌 거주자, 체재자 증가 대책 가속화

인구감소,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업·삼림·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지혜, 자원 활용, 인재 육성, 국제 교류·지역간 교류, 지속적·자립적 발전을 위한 조건 정비를 위한 지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카이세대(團塊世代)\*나 젊은이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의 창의, 연구를 후원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에 의한 생활환경 정비나 교류·체재시설 정비 등의 촉진,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에 의한 신상품 개발 등의 추진, 분발하는 지원응원 프로그램에 의한 의욕적인 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 이런 조치들에 의해 향후 5년간 전국 시정촌의 과반(100곳 이상)에서 거주자, 체재자를 늘리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일어서는 농산어촌’이나 ‘좋은 일본’ 등의 우량사례를 분석하고,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한다.

더욱이 농산어촌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의 의지결정과정 및 농업경영에 대한 여성 참여를 촉진하고 농산어촌에서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한다.

### (2) 농산어촌을 떠받치는 사람들의 유대와 자원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법 전개

농산어촌 활성화에 있어서는 특히 농산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환경·조건 정비가 중요하므로 농지·농업용수 등

---

\* 단과세대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49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붐 세대를 말한다. 최근 정년 퇴임을 맞이하고 있음.

과 같은 자원이나 환경의 양호한 보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의 원활한 실시·정착 등을 도모한다. 또 농산어촌의 풍부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유대 유지·재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법을 검토한다.

농업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지역자원인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농업수리시설에 대해 그 기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 시설의 건설에서 기존 시설의 유효 활용·사용년수 연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 5.2. 생활을 지키는 조수해 대책 전개

농림수산업뿐만 아니라 중산간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특정 야생조수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력 강화와 함께 지방 지자체, 농업관계단체, NPO 등과 연대하고, 시정촌 레벨의 유해조수 포획수 관리 및 포획 체제 강화, 지역 자원으로서 포획짐승의 활용 등 새로운 시각으로 방제 대책 추진, 마을 주변 산림·농지 등의 혼재지역(里地里山)의 관리대책 촉진 등 생식환경 대책 강화, 피해의 광역화·심각화에 대응한 대책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shin\\_nousei/2007.pdf](http://www.maff.go.jp/shin_nousei/2007.pdf)(일본농림성) 번역